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4

생명수이신 그 영을 마시기 위해 반석을 향해 말하고 생명수이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우물을 팜

성경: 출 17:6, 민 20:8, 21:16-18, 고전 12:13,
요 4:10, 14, 7:37-39, 19:34, 고전 10:4, 계 22:1-2

I. 반석을 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분명하고 완전하며 온전한 그림이다 — 출 17:6.

- A. 이 예표에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지팡이는 율법의 힘과 권위를 나타낸다.
- B. 따라서 반석을 친 것이 모세의 지팡이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였다는 것을 상징한다 — 비교 갈 2:19-20상, 3:13.
- C. 살아 있는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에 의해 매 맞으심으로써, 부활 안에서 생명수가 그분에게서 흘러나와,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 마시도록 그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 출 17:6, 고전 10:4.
 - 1. 그리스도는 우리를 낳는 반석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힘과 피난처와 숨을 곳과 보호와 덮개와 안전이 되는 반석이시다 — 신 32:18, 삼하 22:47, 시 95:1, 62:7, 94:22, 사 32:2.
 - 2. 피와 물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왔다. 피는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으로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것으로서 죄의 권능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 창 2:21-22, 요 19:34, 스펀 13:1, 시 36:8-9, 계 21:6, 영한 동번 찬송가 1058장 1절(한국복음서원 찬송가 731장 1절).
- D.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이다.
 - 1. 부활은 이전에 죽음에 넣어졌지만 지금은 다시 살아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부활은 또한 죽음을 통과한 무언가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을 의미한다.
 - 2. 매 맞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주요 단계들이 성취된 후에야 비로소 솟아났다. 따라서 출애굽기 17장 6절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죽음을 암시하는 심오한 절이다.

민수기(2)

메시지 4 (계속)

3. 우리가 마시고 흘러 보낼 수 있는 생수이신 그 영은, 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후에야,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 들어가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 — 요 7:37-39, 눅 24:26.
 4. 사실상 생수, 곧 흐르는 물이 부활이다. 부활은 삼일 하나님, 곧 근원이신 아버지과 과정이신 아들과 흐름이신 그 영이다 — 요 5:26, 11:25.
- E.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양, 곧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이다. 그러므로 생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흘러나오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 계 22:1.
1. 생수의 흐름은 영원부터 보좌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계속되었고(요 4:10, 14, 19:34), 지금은 부활 안에서 계속 흐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성한 생명의 모든 풍성을 공급하고 있다(계 22:1-2).
 2. 부활 안에 있는 생수의 흐름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고전 12:13)과 그리스도의 신부의 준비(계 19:7)를 위한 것이며, 둘 다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될 것이다(계 21:9-10, 비교 엡 5:23, 28-30).
- F. 요한복음 4장 14절 하반절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는 원천으로서, 아들은 샘으로서, 그 영은 흐르는 강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을 산출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 G. 삼일 하나님 전체가 매 맞은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연관되었다. 하나님(아버지)은 반석 위에서 계셨고, 반석은 그리스도(아들)였으며,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흘러나옴이신, 마실 수 있도록 흘러나오시는 그 영을 상징한다 — 출 17:6, 고전 10:4, 요 7:37-39.
- H. 우리는 부활 안에서 한 영을 마실 때 몸의 지체들이 되고, 몸으로 건축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 — 고전 12:13, 계 22:17.

II.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서 생수를 받기 위해 우리는 다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말하면’ 된다 — 민 20:8.

- A.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영께서도 이미 주어지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다. 즉 생수가 흐르도록 다시 반석을 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오직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 — 히 7:27, 9:26-28상.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4 (계속)

- B. 지팡이를 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 C. 우리가 매 맞으신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때, 즉 우리가 매 맞은 그리스도이신 그분과 하나 될 때, 신성한 생명이 생수처럼 우리에게서 흘러 나간다 — 출 17:6, 요 7:38, 비교 아 2:8-9, 14, 빌 3:10.
- D. 반석을 향해 말하는 것은 매 맞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직접 말하는 것이며, 그 영께서 이미 주어진 사실에 근거하여 생명의 영을 주시도록 그분께 요청하는 것이다 — 비교 요 4:10, 영한 동번 찬송가 248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02장).
- E.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시도록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요청할 때, 우리는 생명의 넘치는 공급이신 살아 계신 영을 받을 것이다 — 빌 1:19.
- F. 모세는 다만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해야 했다(민 20:8).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다툼을 처리한다면, 교회생활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III. 민수기 20장 8절에 나오는 반석은 생수이신 생명의 영께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에 의해 매 맞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면, 21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우물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요 4:11-12, 14.

- A. 우물을 파는 것(민 21:18)은 우리 마음, 즉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장애물인 ‘흙’을 파내어 생수이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 자유롭게 흐르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B. 우리 안에서 생수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우리는 주님께 가서 ‘파내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 속에는 파내야 할 많은 ‘흙’이 있다.
 - 1. 우리는 주님께서 유죄 판결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파내야 한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님 자신만을 추구하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 마 5:8.
 - a. 한 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그분의 길을 추구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들은 주님 자신 이외의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민수기(2)

메시지 4 (계속)

- b. 우리는 복잡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할지 모른다. 우리의 마음이 갖고 있는 목표와 목적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족, 직장, 학위, 장래에 대한 염려 등 얼마나 많은 목표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2.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양심이 반드시 처리받고 순수하게 되어야 한다 — 히 9:14, 10:22, 딤후 1:5, 19, 벧전 3:16, 21, 요일 1:7.
 - a.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거절하고 행하지 않을 때, 이것은 우리의 양심에서 죄목이 된다. 이러한 죄목들이 우리가 파내야 하는 흠이다.
 - b.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께 거둬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파내져야 한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반드시 모든 흠을 파내야 한다.
 - c. 거리낌이 없는 양심은 어떤 거리낌이나 비난이 조금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 행 24:16.
3.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흠을 파내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 롬 12:2, 엡 4:23, 롬 8:6, 고후 10:4-5.
 - a. 거둬난 많은 사람들이 유행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들은 현시대에 따라 옷을 입는다.
 - b. 거둬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돈을 사용한다. 그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그들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더 많은 입지를 드린 후에야, 그들은 돈을 쓰는 방식에서 변화될 것이다.
 - c. 대학에서 공부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학업과 학위에 대해 세상의 다른 젊은이들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들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있다면, 그들은 학업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학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관점을 가질 것이다.
 - d.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매일 하는 많은 상상들로 인해 눈멀게 되었다. 수북이 쌓인 흠은 단지 많은 생각과 상상과 꿈이다. 생수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파내야 한다.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4 (계속)

4. 우리는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흠을 파내야 한다. 주님께 절대적이고도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 a.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 안에서 주권적으로 안배하신 것에 복종하지 않는다 — 비교 빌 4:11-13.
 - b.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주님께 매우 복종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들 안에 두실 때 우리는 드러난다.
 - c. 주님의 주권으로 겪게 되는 많은 체험들과 환경들은 다만 우리를 빛 가운데서 드러내어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완고한지를 알게 한다.
 - d. 의지는 완전히 복종적이어야 한다. 단지 복종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이 그리스도의 표현이 될 것이다 — 눅 22:42, 약 4:7, 빌 2:13.
5. 의지로부터 흠을 파낸 후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 a. 우리가 감정적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점유된다. 즉 우리는 우리 감정의 속박과 통제 아래에 있게 된다.
 - b. 우리는 주님의 통제 아래서 우리의 사랑을 조절해야 하고, 주님의 기쁨에 따라 우리의 감정을 사용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 마 10:37-39, 빌 1:8.
 - c.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따라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미워하고 사랑하든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든지, 주님의 허락하에 그분의 즐거움에 따라 그렇게 하기를 배워야 한다.
 - d. 우리의 감정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따라 지켜진다면, 우리의 감정은 영으로 적셔지고 변화될 것이다.
6.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환경에 대해 잊어버려야 하며,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추구하고 주님께 우리를 그분의 빛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안에 있는 흠을 파낼 수 있다 — 사 2:5, 눅 11:34-36, 요일 1:5, 7, 9.
7. 이렇게 파내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시간에 기도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며, 그분의 내적 인도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

민수기(2)

메시지 4 (계속)

- 우리가 더 많이 흠을 파낼수록, 생수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면서 우리를 더욱더 살아 있게 하고 강화되게 하며 승리하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생명이 더욱더 자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한 동번 찬송가 250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01장)을 부르며 이 찬송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